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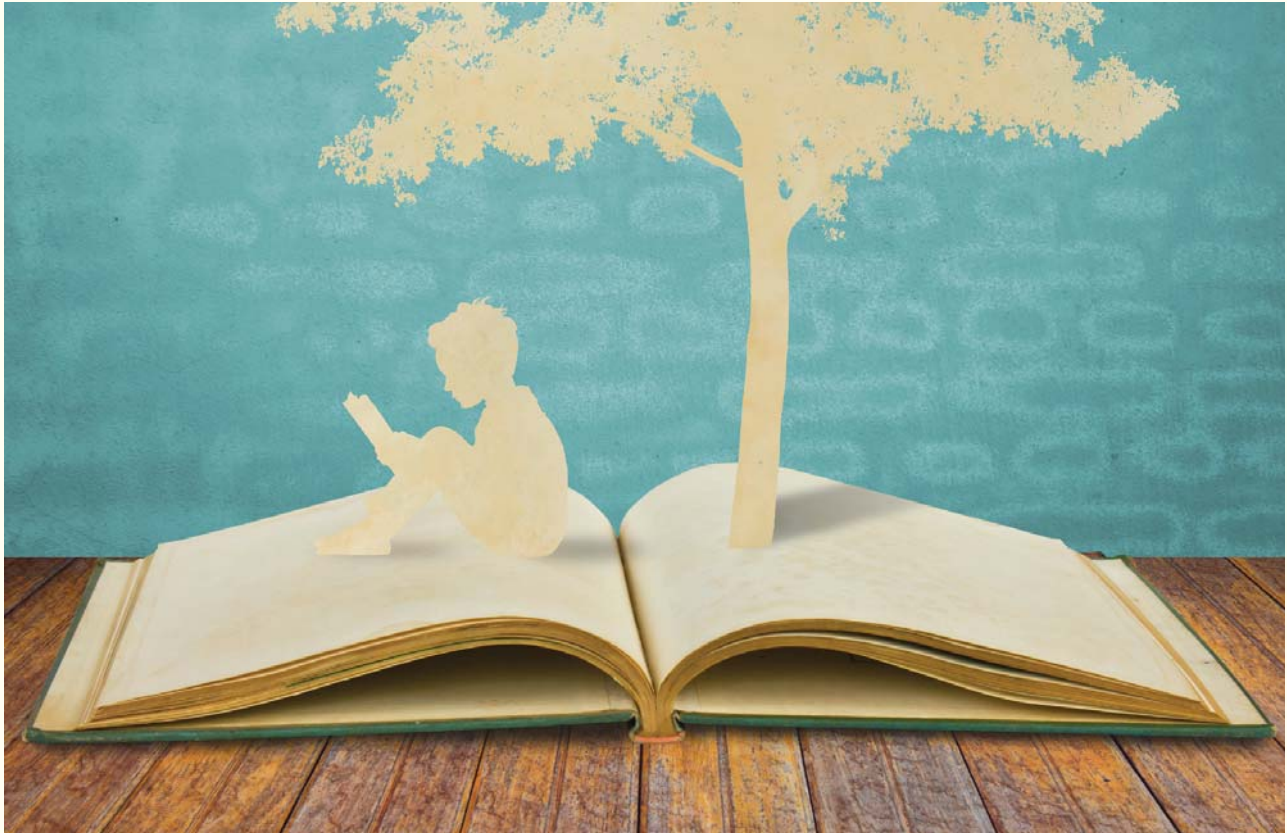
정희영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하였으며 그 시대의 사상과 필요를 반영한 소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그 나라 교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현대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반영하는 교육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누리과정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구성된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개정되어 왔던 유치원교육과정이 2012년에 누리과정이란 이름으로 어린이집 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통합되어 다시 재구성이 된 것이다. 누리과정은 그 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의 누리과정의 의의를 찾는다면, 누리과정이 나오면서 유아의 교육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유아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2012년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일부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교사들의 급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누리과정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역사에서 갖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누리과정을 마치 국정 교과서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누리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의 이념이나 철학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이제

는 모두가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평가도 누리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의해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독교적인 철학에 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사나 원장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에서 교육은 중립이므로 종교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누리과정이 중립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대해 기독교인 교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누리과정의 철학적 뿌리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철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된 교육과정의 내용이 처음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발전은 학자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유치원 설립 초기부터 광복 이전까지, 또한 광복 이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된 현재까지이다.

광복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

광복 이전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크게 두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프로벨의 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듀이의 교육철학이다. 특히 광복 이전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에 영향을 준 사상을 듀이의 사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선교사 브라운 리(Brown Lee)의 영향이다. 당시 변혁기를 맞았던 미국 유치원 교육의 진보적 영향을 받았던 브라운 리는 이화유치원의 교사로서 유아를 교육하였고 1915년 개설된 이화유치사범과에서 유치원교사를 양성하였다. 브라운 리는 1932년 힐이 호레이스만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모아 만든 교육과정(A Conduct Curriculum for the Kindergarten and First Grade)을 『활동에 기초한 아동교육법』이라고 번역하여 보급하였다. 힐이 고안한 『활동에 기초한 아동교육법』은 진보주의 이론을 도입한 교육과정이다. 그는 1887년 켄터키의 루이스빌 유치원 교사양성학교에서 지도자로서 진보주의에 입각한 유치원 교육이론과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론을 발전시켰다. 1905년 힐은 콜롬비아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그의 교육과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때 듀이도 1904년 시카고대학을 사임하고 콜롬비아대학에 재직하면서 힐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였을 것으로 본다. 특히 교육과정의 첫 번째 시도에서는 힐이 주로 듀이의 교육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광복 이전 유치원 교육에 영향을 미친 교육철학은 듀이의 교육철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광복 이전에 유치원 교육에 영향을 미친 사상이 듀이의 사상이라는 근거는 구한 말 정치적, 교육적, 종교적 상황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말기의 개화기에서부터 국권이 상실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세에 대한 문호개방을 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렸으며, 동시에 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강력한 힘을 목격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열망과 탈출구를 요구하게 되었다. 교육적으로는 그 동안의 유교적 교육의 모순으로 인한 세도정치와 관리의 횡포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질서구조를 요구하게 되어 새로운 시대적 사상과 현대적 의미의 교육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종교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사상이 그 자리를 잃게 되자 우리 민족은 종교적인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고 기독교를 수용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로 구성된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수학하게 된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대부분 미국의 교육을 그대로 들여와 교육을 하게 되는데, 듀이의 철학에 의한 교육이었다.

셋째, 듀이사상의 영향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세워진 근대식 학교에서의 교육과 미국 유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85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가 한국에 들어와 1920년 연희전문학교를 창설한다. 이때 언더우드는 피셔(James E. Fisher)와 함께 강의하는데, 피셔는 듀이가 콜롬비아대학에 재직할 당시 듀이 밑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였으며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강의하였다. 따라서 피셔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듀이의 사상을 전파함으로써 지식인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은 피셔와의 관계로 인해

듀이의 철학에 기초를 둔 누리과정은
절대자를 부인하는 교육과정이고,
진화론에 근거를 두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창조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나님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며,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콜롬비아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듀이 밑에서 공부하게 된다. 1929년에는 오천석이 콜롬비아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듀이의 강의를 직접적으로 수강하게 된다. 듀이가 은퇴한 후에는 듀이의 뒤를 이은 킬패트릭(William H. Kilpatrick)교수에게 김마리아, 김애마, 김필레, 김활란, 서은숙 등이 강의를 들었다. 이상의 여성들은 모두 콜롬비아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나 석사학위 내지는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학위 수여 이후에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교수나 교사로 후학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이들의 콜롬비아에서의 수학은 듀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들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듀이의 철학에 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오천석은 보성전문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듀이의 사상을 전했다. 또한 오천석은 1934년 11

월 17일부터 28일까지 8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듀이의 교육철학에 기초한 아동중심사상이 유치원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일반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전하면서 그 당시의 유치원 폐지론에 반박함으로써 공적으로 언론을 통해 듀이의 교육철학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광복 이전 초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일제의 영향 하에서 프뢰벨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에는 브라운 리의 유치원 설립과 교육, 이화유치사범과의 운영, 구한말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이 새로운 현대식 교육을 요구하였고 이 때,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한 듀이 철학의 유입,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에서의 듀이철학에 대한 수강과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의 콜롬비아대학으로의 유학과 귀국 이후의 활약 등이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광복 이후의 유치원 교육과정

광복 이후 5세 누리과정이 제정되기까지 7차에 걸친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과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 유치원 교육과정 제 1차부터 7차에 걸쳐 아동의 활동, 흥미, 경험, 생활, 문제해결능력, 개성의 존중, 민주사회시민 등이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 가운데 유치원 교육의 필요성, 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 목표,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주요 개념은 아동중심교육 철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듀이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진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교실에서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광복 이후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듀이의 사상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듀이철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50년대의 듀이사상의 영향은 미국의 교육사절단의 교육적 활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

교육사절단은 전란으로 황폐화된 한국 교육의 재건을 돕기 위해 미국이 제공한 교육원조의 일환으로 3차에 걸쳐 파견되었으며 교원재교육, 교원 양성교육, 교육연구활동, 교육과정 등에 직, 간접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1차 교육사절단은 1952년 9월에 7명이 내한하여 1953년 6월까지 700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원을 지도하였으며 교육철학, 교육행정학, 정신위생 등의 다양한 분야의 워크숍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진보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누리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누리과정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는 것은 듀이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사고는 반성적 사고에 의해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반성적 사고에서는 실험에 의해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 과학적 실험에 의해 경험된 것만이 진리인 것이다. 듀이는 인본주의 선언 II에서 초자연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형이상학적 차원은 경험적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실험할 수 없으므로 알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형이상학적 수준에 대한 믿음은 거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경험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영원불변의 진리와 가치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절대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듀이의 철학에 기초를 둔 누리과정은 절대자를 부인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듀이의 철학에 근거를 둔 누리과정은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며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누락시키고 전인교육이라고 표방하고 있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입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기독교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창조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

하게 여기고,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교육과정의 차이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 교사들은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동안 받은 교육이 인본주의교육이었으니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 교사로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는 어려움과 수고를 감당할 것인가는 기독교인 교사들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누리과정의 운영에 대한 비판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교사들의 인식이 깨어나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찾는 법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광복 이전과 이후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은 정희영의 저서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누리과정의 재구성」에서 발췌하였음.



글 | 정희영

현재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며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사회복지대학원장, 상담대학원장, 그리고 부속유치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기독교학문학회장, 한국기독교유아교육학회장을 역임하였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

박상호 (단원고등학교 영어교사)



청소년들에게 학교적응은 중요한 과업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에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간 학습된 무기력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논문을 썼다. 그리고 이 글은 논문에 대한 요약이지만, 구체적인 출처는 생략하고 문맥의 흐름을 위해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인지적이고 신체적인 면에서 특별한 장애가 없는데도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

고 수업 준비를 하지 않으며,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산만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 화장을 하거나 책이나 연습장에 그림을 그리고 낙서하는 학생들이 많고, 교사들이 주의를 줘도 아랑곳없이 엎드려 잠을 자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점점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교실에 앉아 있거나, 의욕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